

수자원공사, 자연과 미래를 위한 '플로깅 챌린지'

10억 걸음 채우면 대전 미래세대에 1천300만 원 기부



1, 2, 3 한국수자원공사가 대전관광공사·지역 주민과 함께 대청호에서 산책하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행사를 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5월 4일 대전 대덕구 대청호오백리길에서 대전관광공사, 지역주민 등과 함께 '대청호 자연과 미래를 위한 플로깅' 행사를 했다.

'플로깅'은 스웨덴어 '이삭 줍다'(Plocka Upp)와 영어 '조깅'(Jogging)의 합성어로 산책을 즐기며 쓰레기를 줍고 생활 속 친환경을 실천하는 활동을 말한다.

행사는 대청댐과 지역 대표 산책 코스인 대청호오백리길을 관리하는 두 기관을 중심으로 대청호 지역주민 등 약 60여 명이 참여했다.

두 기관은 대청호오백리길 플로깅을 시작으로 지역 주민과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함께 기획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수자원공사는 6월 4일까지 전 국민이 물 문화를 즐기고 대전 지역 미래세대와 함께 나누는 기부 챌린지인 '대청호 플로깅 챌린지'와 '10억

보 걸음 기부 챌린지'도 한다.

대청호 플로깅 챌린지는 아름다운 대청호를 즐기고 보호하며 대전 지역 미래세대를 위한 나눔 프로젝트다. 대청호오백리길 대전 구간에 있는 디지털 스탬프 인증장소 중 한 곳을 방문해 플로깅하고 사진을 통해 인증하는 방식이다.

10억 보 걸음 기부 챌린지는 국민 누구나 일상생활 속 걷기를 통해 나눔을 참여하는 것으로, 챌린지 기간 참여자 걸음 수가 10억 걸음을 달성하면 공사가 대전지역 미래세대에 1천300만 원을 기부한다. 챌린지 기간 참여자 걸음 수는 자동으로 누적된다. 챌린지 목표 10억 걸음은 약 70만km로 지구 둘레를 15바퀴, 대청호오백리길을 약 3천 500번 돌 수 있는 거리다.

참가자는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설치한 후 챌린지에 참여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수자원공사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2



3